

80세 이상 고령농업인 전화로 공익직불제 교육

농관원, 자동전화교육 나서... 교육이수 가능

국립농산물관리센터(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는 2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약 26만 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을 실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방식은 농관원의 자동전화연결시스템

(ACS)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전화(☎1644-3656)를 걸고 전화를 받은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 동안 청취하면 교육이 완료돼 이수한 사실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리된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전화교육을 실시해 5월까지 1차 교육을 마무리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전화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농업인이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전화번호(☎1644-3656)를 확인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교육을 이

수할 수 있다. 통화요금은 5분에 약 540원 정도다. 이외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와 지역농협 등에서도 연중 공익직불 교육과정을 운영해 농업인은 편리한 방법으로 이수하면 된다. 만약 9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돼니 유의해야 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인 교육·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대패삼겹살 인삼말이.

인삼 곁들인 삼겹살... "소화가 잘돼요"

농진청, 오늘 삼겹살데이 맞아 건강식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3월 3일 삼겹살 먹는 날(삼겹살 데이)을 맞아 돼지고기에 인삼을 곁들여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건강식 요리를 추천했다.

2일 농진청에 따르면 인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면역력과 기력 개선, 피로 해소, 항산화, 혈액순환 개선, 갱년기(여성) 완화, 뼈 건강 개선, 간 기능 개선 효능이 외에도 항암 작용과 당뇨 조절 같은 연구 결과가 보고된 국가 대표 약용작물이다.

이어서 삼겹살은 돼지고기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부위로, 110kg 돼지 한 마리에서 12kg 정도가 나온다. 삼겹살 100g에는 비타민B1 0.489mg, 아연 1.7mg, 셀레늄 14.06μg 등이 고르게 함유돼 있다. 지방 함량은 34g(생고기 기준) 정도로 약간 많지만,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60% 정도로 높아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앞서 소개한 인삼과 삼겹살은 불판에 함께 구워도 좋고 내패삼겹살 인삼말이와 '삼겹살 수삼냉채' 등 요리로 즐겨도 좋다.

대패삼겹살 인삼말이는 얇게 썬 대패삼겹살 위에 손가락 굵기와 크기의 인삼과 버섯 등을 올린 뒤 볼볼 말아 프라이팬에 구우면 된다. 이때 고기는 튀기듯이 굽는 것이 좋다.

삼겹살 수삼냉채는 삶은 삼겹살을 얇게 썰고 그 위에 채 썬 수삼, 부추, 오이, 밤, 대추를 올린 후, 설탕과 식초, 겨자를 섞은 소스를 함께 곁들여 내면 된다.

여기에 더해 인삼과 돼지고기는 함께 먹었을 때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고단백, 고열량 식품인 돼지고기에 인삼을 곁들이면 인삼의 사포닌이 돼지고기의 지방을

분해해 소화를 돕는다. 또한 인삼 특유의 씹쓸한 풍미가 돼지고기의 냄새를 중화해 더 먹기 좋게 만들어 준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최수지 보건연구관은 "동의보감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성질이 차고 반대로 인삼은 성질이 따뜻해 식재료로서 인삼과 돼지고기를 본다면 같이 먹을 때 한쪽의 기력이 저하되었을 때 먹으면 보완할 수 있다"며 "인삼과 돼지고기 모두 몸이 허약해진 것을 보충하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기력이 저하되었을 때 먹으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김진형 과장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삼겹살 인삼 요리로 다가올 봄날 불청객 춘곤증도 이겨내고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현장 방문으로 농정현안 직접 챙긴다

전북농협, 도내 13개 시군 현장경영 시작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사진)은 2일 무주군지부를 시작으로 도내 13개 시군지부를 방문해 농정현안을 챙기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현장경영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경영은 지자체장, 농·축협 조합장 및 시군지부장, 농업인단체장 등과 함께 다양한 의견과 고충사항을 청취하는 등 폭 넓은 대화를 통해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무주군 현장경영에서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정재호 본부장, 오영석 농협무주군지부장, 곽동열 무주농협 조합장, 양승욱 구천동농협 조합장 등이 함께 해 지자체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고충사항기부제 답례품이 농축산물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번 시군 현장경영으로 지자체·농협·농업인단체가 협력해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1월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 ↓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2일 발표한 2022년 1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화학제품(-8.2%), 금속가공(-17.2%), 전기·가스업(-1.5%) 등에서 감소했으나 식료품(1.9%), 기계장비(16.3%), 1차금속(8.1%) 등이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했다. 반면 전월대비는 3.4%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는 화학제품(-7.2%), 금속가공(-26.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15.6%) 등에서 감소했으나 식료품(10.0%), 1차금속(11.0%), 자동차(10.0%) 등이 증가해 전년동월 대비 4.8%, 전월대비 2.0% 각각 증가했다.

광공업 재고는 1차금속(43.2%), 기계장비(34.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52.3%) 등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36.8%), 식료품(-24.0%), 화학제품(-5.7%) 등이 감소해 전년동월 대비 13.1%, 전월대비 3.3% 각각 감소했다.

한편 1월 전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1.8로 신발·가방은 감소했으나 오락·취미·경기용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이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했다. /최대희 기자

전은 장학문화재단

JB커리어 캠프 매타버스 진행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 이하 재단)은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제9회 2022 JB커리어 캠프'를 진행했다.

2일 재단에 따르면 JB 커리어 캠프는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취업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분야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 설계와 취업역량 및 리더십 등을 개발해 영향력 있는 인재가 되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는 대면 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줌(zoom)화상을 기반으로 이프랜드, 게더타운 등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진행했다. 대학생 로드맵, NCS 특강, 메타버스의 이해와 비대면 활동, 취업이슈 및 기업 인재의 조건, 취업 준비를 위한 브랜딩, 토크 콘서트(취업 선배와의 만남) 등 대학 커리어 역량 증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메타버스로 진행됐음에도 학생들의 높은 호응 속에 성료했다.

김영구 이사장은 "앞으로도 전북은행이 미래인재들에게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LX공사 성기청 감사(사진 가운데)가 2일 전주 LX공사 본사 카페120에서 열린 '신규 감사인과의 대화'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영·운영·전략 톡니바퀴처럼 사내 정치 DOWN·생산성 UP'

LX성기청 상임감사, 신규 감사인과의 대화 참여 '반성하는 조직' 강조 청렴확신헌의체 구성 주문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 성기청 상임감사는 2일 본사 카페120에서 열린 '신규 감사인과의 대화'에 참여했다.

이날 성기청 감사는 "조직이 건강하면 문화를 먼저 챙긴다"며 "경영·운영·전략이 톡니바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사내 정치가 줄고 생산성과 자긍심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그동안 성기청 감사는 취임 이후 38곳의 본부·지사 등을 방문하고 내부 행사에 참여해 950여 명의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왔다.

특히 반성하는 조직'을 강조하며 전직 임원진의 해임 사태가 있기까지 상명하복에 갇혀 침묵해온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청렴확신헌의체 구성 해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를 주문했고, 이 연장선에서 '상호인식 프로그램

램'(대면평가)을 도입해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평가와 권위적 조직문화 탈피에 일조했다.

또한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 읍부즈퍼슨제도를 운영해 실질적 자문을 구함으로써 감사 품질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

아울러 부정부패·비리 의혹이 불거질 경우 빠르고 엄중하게 조사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했고, 비대면 시대에 맞는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확산해 깨끗한 조직문화에 기여했다.

한편 LX공사는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A등급, 국토교통부 공직복무관리업무 우수기관을 달성했다. /최대희 기자

'브릿지보증' 으로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전북도, 정부 출연 통해 재원 확충... 사업자보증, 개인보증으로 전환

전북도가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줄여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한 '브릿지보증'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북도와 정부의 출연을 통해 보증재원을 확충, 이전보다 많은 폐업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브릿지보증'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대출을 받은 후 폐업을 하면, 이를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했다. 여유자금 부족 한 소상공인은 상환부담에 폐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에 걸림돌이 됐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브릿지 보증을 시행해 보증자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계속해서 금융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고, 보증을 유지해 폐업 시 일시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브릿지 보증'은 폐업자 중 개인신용평점 90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 개인을 대상으로,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고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적용해 상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기존에 보증기간이 1개월 이내

도래기업만이 대상이었으나, 6개월 이내로 범위를 확대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상요건을 완화한 계획이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만큼, 이번 브릿지보증에 의해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브릿지보증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관할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MOU 조기 해제, 중앙회 완전한 재정자립 이뤄낼 것"

김윤식 신탁중앙회장 취임식

신탁중앙회는 2일 신탁중앙연수원 다목적홀에서 제 33대 김윤식(66) 중앙회장의 취임 및 임원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윤식 신탁중앙회장은 작년 12월 치러진 첫 직선제 회장 선거에서, 62년 신탁 역사상 처음으로 경선 없이 단독후보로 추대돼 연임에 성공했다. 신임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4년이다.

이번 취임식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비례한 각계 귀빈과 전국 신탁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윤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신탁중앙회장으로서 신탁의 규제 완화와 조화의 부담 완화에 모든 정성을 쏟았듯 앞으로의 4년도 이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MOU 조기 해제와 중앙회의 완전한 재정자



김윤식 신탁중앙회장이 2일 신탁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중앙회장 취임 및 임원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탁중앙회 제공)

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영 상 추사를 통해 "신탁은 지난 62년 동

안 우리 국민을 보듬어 주었다"며 "이번 취임식이 신탁이 지향하는 자조와 자립,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서민포용 금융을 더욱 더 확대해나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33대 신탁중앙회 김윤식 회장은 ▲제32대 신탁중앙회장(2018.3.~2022.2) ▲현 세계신탁협의회(WOCCU) 이사 ▲현 아시아신탁연합회장(ACCU)을 역임하고 있다.

이날 신탁중앙회 신임 임원으로 취임한 이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영철 광주문화신탁 ▲김명호 경남기운신탁 ▲김중찬 구미신탁 ▲김학산 끝별신탁 ▲남기화 사상신탁 ▲노인호 청주남부신탁 ▲박종식 삼익신탁 ▲양준모 공주중앙신탁 ▲오균호 서대구신탁 ▲오인환 미장신탁 ▲이기찬 수지신탁 ▲이사 겸 감사위원 ▲조경래 대구철곡신탁 ▲한숙자 춘천신탁 /최대희 기자